

현안사업 추진 특교세 확보 총력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 행안부 찾아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사업 지원 요청

무주군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희옥 부군수는 20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아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요청했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사업(총 사업비 142억 원)은 고령의 노인과 치매환자 수 증가 등 높아지고 있는 보건 의료 수요에 대응(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 노인성 질환자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 면적 3,500㎡ 규모에 진료실과 병실(치매병동 포함), 재활·물리치료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김희옥 부군수는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필요한 군비 부족분 35억 원 중 1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했다.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는 "열악한 보



무주군 김희옥 부군수는 20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찾아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료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립요양병원 등 현안사업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이

라는 앞찬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청년주거비 지원 추진

29일까지 신청 받아 8월 중 대상자 최종 선정 생애 1번 월 최대 15만원씩 1년 동안 지원

진안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진안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도 내에서는 부안에 이어 2번째로 추진하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2월 청년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자격 조건 등을 심의를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관련 재협의를 마쳤다.

지원 자격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취업한 청년(만 18세~만 45세)으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지원금은 생애 1번 월 최대 15만원씩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주 주택은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주말 제외)며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8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며, 지원금은 12월, 7월 반기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며 생애 1번은 진안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지원범위와 규모를 점차 확대하는 등 예산 확보 및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9월 말까지 조림지 활착률 조사 실시

무주군이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나섰다. 활착률 조사 사업은 봄에 심은 나무가 제대로 생육되어 자라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림 성공률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군에 따르면 올해 봄철에 조림한 조림지의 활착률과 생육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256ha 조림지를 대상으로 9월말까지 활착률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활착률 조사를 통해 조림 성과도와 앞으로 가꾸 나갈 수목의 생육상태를 파악해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활착률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림지 전 개소에 대해 표준지 조사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며 표준지조사 비율은 조사대상 면적의 2% 이상이다.

표준지 선정방법은 조사 대상지 전 구역에 답사한 후 조림지 입지조건 및 개황을 파악하여 조림지내에서 표준지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며, 가능한 산록부(산 아래쪽)에서 산정부(산꼭대기)까지 대상으로 선정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추진

진안군은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심식당' 지정 추진한다.

안심식당은 ▲개인 접시, 국자 등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업소가 대상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식당 출입구에 안심식당 스티커가 부착되고, 방역물품 및 위생 수저집 등 안전한 식사문화를 위한 물품이 지원되며, 민간포털 및 지도앱(네이버·T맵 등)에 위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안심식당 지정에 희망하는 음식점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063-430-2315)로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방역 이행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 28일 출시

앱·오프라인 발급·충전 가능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이 이달 28일부터 본격 보급·사용 가능하게 됐다. 카드형장수사랑상품권은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chak)에서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 충전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발급, 충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카드 발급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 관내 11개 판매대행점(농협은행장수군지부, 장수농협



본점·지점 4곳, 장계농협 본점·지점 4곳, 무진정축협 장수지점, 장계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매가능금액은 개인 카드형, 지류형

을 포함한 월 총 5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은 800여개소이다. 또한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은 기존 종이형 상품권의 훼손 및 분실의 위험성과 부정유통 방지 등의 문제점을 보완,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카드형 장수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을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대대적 국토대청결운동 펼친다

무주군이 본격적인 휴가철 손님맞이와 장마 뒷정리를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9일까지 무주군청을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기관·사회단체, 각 마을주민들이 함께 집 앞과 가로변, 하천둔치, 공원 등을 청소할 예정으로 22일에는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펼친다.

이날 활동에는 무주군청 18개 실과 소 공무원과 자연보호무주군협의회, 강살리기무주네트워크 회원 등 3백여 명이 참여해 ▲덕유산국립공원(구천동, 칠연지구, 덕곡계곡)을 중심으로, ▲무주읍 만남의 광장~뒤편 하천부지, ▲취수장~무주우체국, ▲무주대

교~남대전교, ▲남대전교~농공단지 주차장, ▲무주우체국~당산대교 일원에서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무주군은 특정시기(7월 중순~8월 말)와 지역(구천동, 안성 통안 등)에 다양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해 군청 환경위생과와 각 읍·면 담당 공무원들로 상황반을 구성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금지 홍보와 단속, 청소에 주력한다. 또 무종과 실천, 안성, 적상, 부남은 8월 31일까지, 구천동 지역은 9월 15일까지 주말에도 청소인력(환경관리지)을 배치해 쓰레기 수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경찰서·소방서와 물놀이 관리지역 합동 안전점검

진안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다음 달 15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유관기관과의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군은 19~20일 2일간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피서객이 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ZERO화를 목표로 물놀이 주요 현장에 대해 안전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적으로 점검했다.

세부 점검 사항은 인명구조함, 구명장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현황과 부식, 파손 여부, 위험구역 현수막,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앞서 군은 6월 1일~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지정,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T/F 구성, 안전관리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실전 교육까지 마쳤다.

또한 관내 16개 물놀이 지역에 안전시설(인명구조함 등) 상태 확인과 위험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운일암반일암과 정자천 4구역 등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무선비상호출시스템)설치, 부표설치,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 등을 설치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동안 비상근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군민들과 피서객들도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명조끼 착용, 음주 수영 안하기, 위험구역에 출입하지 않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여름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